

2022 경제·금융시장 전망과 중소기업



CONTENTS

1

세계 경제

총론	백신 접종 확대·양호한 성장세 유지	05
미국	코로나19 안정화 및 대규모 정부 투자로 성장세 지속	06
중국	성장 기조 유지, 정책 전환에 따른 성장률 둔화 우려	06
유로존	민간소비 중심의 완만한 회복세 지속	07
일본	수출 호조 속 제조업 투자 증가 기대	07
이슈	미국발 인플레이션 심화 우려,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는 온도차	08

2

국내 경제

총론	성장률은 둔화되나 양호한 경기 회복세 유지	10
소비	백신 접종 확대로 대면 소비 증가 기대	11
수출	수출 증가세는 지속되나 증가율은 둔화	11
투자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설비투자 확대	12
정부 재정	확장적 재정 통해 경기 회복 견인	13
주요 이슈	심상찮은 가계부채·자영업자 대출 부실 리스크	14

3

금융시장

기준금리	추가금리 인상 전망 잇따라	16
환율	환율 안정화 기대	17

4

산업구조

산업 환경	수요 회복 기대되나 공급 측면의 불확실성 여전	19
산업별 전망	불확실성 여전, 반도체 '맑음'	20
산업 이슈 ①	글로벌 산업구조 변화 가속, 혁신이 성패 좌우	22
산업 이슈 ②	둔화된 산업 역동성, 구조 개편 시급	23
산업 이슈 ③	탄소중립 전환의 위기와 기회	2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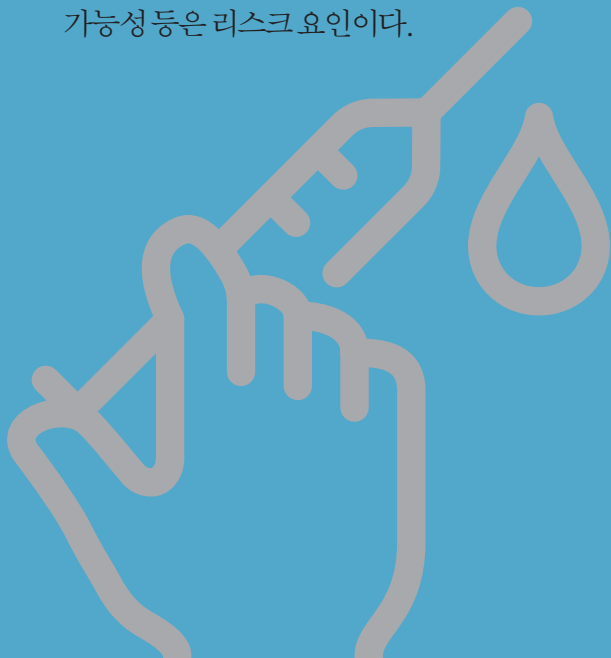
중소기업 경기 전망

생산	내수 회복 기대되나 비용 요인은 부담	26
설비투자	경영 실적 회복이 투자 확대 유인으로 작용	27
자금사정	업황 회복에도 자금난 요인 여전	28
소상공인	경기 회복 기대에도 업종 간 회복 격차 우려	29

1

세계 경제

2022년 세계 경제는 기저효과 등이 반영된 2021년에 비해 성장률은 낮아지겠지만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위드코로나가 점진적으로 확대되면서 펜트업 소비와 생산 및 물류 차질 완화, 관광업 회복이 기대되며 주요국의 경기부양책도 지속될 것이다. 다만, 코로나19 변이 확산 가능성, 인플레이션 심화 가능성 등은 리스크 요인이다.



세계 경제

백신 접종 확대 · 양호한 성장세 유지

2021년 세계 경제는 백신 접종에 따른 경제 활동 재개와 경기부양책 등을 통해 주요 선진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반면 수요 증가에 공급병목 현상이 맞물리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 등 주요국은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22년 세계 경제는 기저효과 등이 반영된 2021년에 비해 성장률은 낮아지겠지만,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워드 코로나가 점진적으로 확대되면서 펜트업* 소비와 생산·물류 차질 완화, 관광업 회복이 기대되며 주요국의 경기부양책도 지속될 것이다. 다만, 코로나19 변이 확산 가능성, 인플레이션 심화 가능성, 중국의 경제정책 전환에 따른 성장 둔화 등은 리스크 요인이다.

특히 일부 신흥국은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이전에 전망되었던 국내총생산^{GDP} 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충격으로 자본 유출이나 환율 및 금리 상승, 채무 부담 증가와 같은 이중고를 겪게 될 가능성이 있다.

* 펜트업^{Pent-up}

코로나19와 같은 외부 요인으로 수요가 억제되었다가 그 요인이 해소되면서 수요가 분출하는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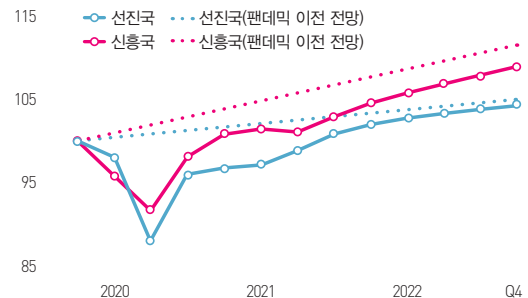
※ 세계보건기구^{WHO}가 2022년 중반까지 글로벌 백신접종을 70%를 목표로 설정한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목표 달성을 위해 5억 회 분량의 백신을 추가 기부하겠다고 발표(2021년 9월 유엔총회)

경제성장률

	2019	2020	2021 ^(a)	2022 ^(a)
세계	2.8	-3.1	5.9	4.9
선진국	1.7	-4.5	5.2	4.5
미국	2.3	-3.4	6.0	5.2
유로존	1.5	-6.3	5.0	4.3
일본	0.0	-4.6	2.4	3.2
신흥국	3.7	-2.1	6.4	5.1
중국	6.0	2.3	8.0	5.6
아세안 5개국	4.9	-3.4	2.9	5.8

주 아세안 5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단위 % 자료 IMF,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2021.10)

코로나19가 실질 GDP에 미친 영향



주 2021.9월 전망 기준(팬데믹 이전은 2019.11월 전망 기준) 단위 2019.Q4=100 자료 OECD



미국

코로나19안정화 및 대규모 정부 투자로 성장세 지속

미국은 코로나19 기간 중 늘어난 개인저축으로 확대된 소비 여력과 정부의 대규모 인적·물적 인프라 투자를 통한 산업 지원 및 고용 개선 등의 효과가 수요 회복을 뒷받침하며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임금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 지속에 따른 인플레이션 확대, 통화정책의 조기 긴축 전환 등으로 성장세가 제한될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 개인저축액

2018.1~2019.12 중 29조5,000억 달러 →
코로나19 기간(2020.1~2021.9) 중 57조1,000억 달러

※ 개인소비지출

2022년 개인소비지출 전년 대비 4.0% 증가 예상(S&P)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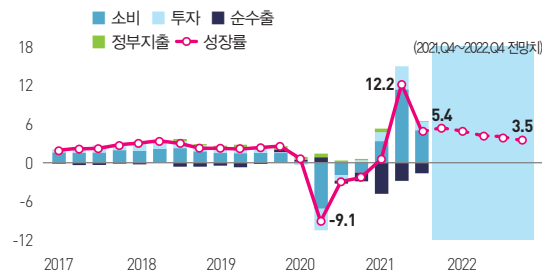
성장기조 유지, 정책 전환에 따른 성장률 둔화 우려

중국은 백신 접종에 따른 대면 서비스업 회복, 고용 개선세 등으로 소비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가 시진핑 3연임 여부 결정을 앞두고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단행하면서 성장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헝다그룹 사태와 같은 기업 부실 우려, 친환경 정책에 따른 생산 위축, 미국과의 갈등 지속 등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경제성장률(전년 동기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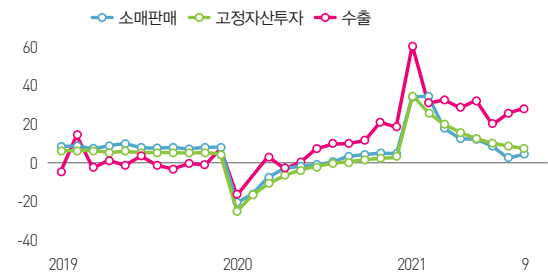
-6.8(2020.Q1) → 3.2(Q2) → 4.9(Q3) → 6.5(Q4) →
18.3(2021.Q1) → 7.9(Q2) → 4.9(Q3)

미국 경제성장률 및 성장기여도



주 전년 동기 대비, 전망치는 55개 글로벌 금융기관 10월 기준 중간값
단위 %, %p 자료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블룸버그

중국 소매판매·고정자산투자·수출



주 전년 동월 대비 단위 %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유로존

민간소비 중심의 완만한 회복세 지속

유로존은 코로나19 이후 가계저축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소비 여력이 축적되었고, 관광업도 회복세를 보이며 민간소비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독일, 프랑스 등의 재정 정상화로 정부 지출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집행되는 EU 회복기금*이 이를 상쇄할 것이다.

* EU 회복기금

2022년 중 보조금 형태로 1,435억 유로 지원 계획(EU 2020년 명목 GDP의 약 1.1%, 대출금 형태로도 별도 지원)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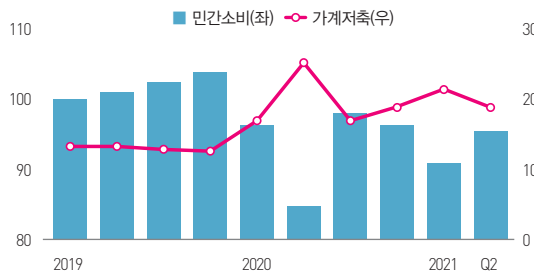
수출 호조속 제조업 투자증가 기대

일본은 백신 접종과 위드 코로나로 관광업과 같은 대면 서비스업이 회복되고 펜트업 소비로 그동안 부진했던 민간소비가 개선될 것이다. 또한 글로벌 수요 증가로 반도체 장비와 자동차 산업 수출이 호조세를 이어가고, 이에 따라 제조업 부문의 생산·설비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민간소비(2019.Q4=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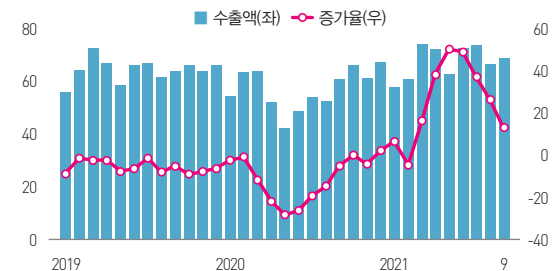
97.3(2020.Q1) → 85.1(Q2) → 91.5(Q3) → 94.3(Q4) → 91.9(2021.Q1) → 93.3(Q2)

유로존 민간소비 및 가계저축률



주 가계저축률은 처분 가능 대비 2019.Q1=100 단위 % 자료 유럽연합 통계청 Eurostat

일본 수출



주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단위 억엔 % 자료 일본 재무성

이슈

미국발 인플레이 심화 우려,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는 온도차

미국 내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우고 있다. 백신 접종 확대에 따른 소비 수요 증가와 공급병목 현상이 맞물리고 있어 2022년 중반까지 인플레이션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경우 통화 긴축 조기 시행에 따른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 신흥국 긴축 발작 등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기조에도 국가별 경기 및 물가 상황에 따라 정책 전환 속도에는 차이가 있을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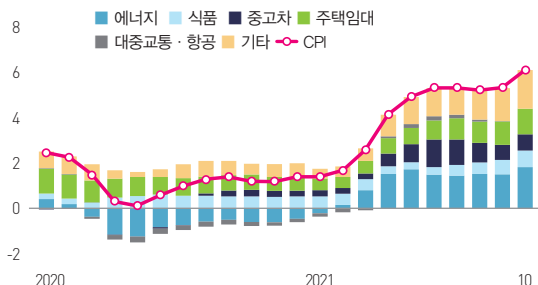
미국은 지난 11월부터 자산 매입 축소를 일컫는 '테이퍼링'을 시작한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경우 기준금리 인상 시점도 당초 계획(2023년 이후)보다 앞당길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유로존은 그리스 등 취약국의 불확실성으로 미국에 비해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으로 보이며, 일본은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양적완화 축소 또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테이퍼링을 공식화하고 있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 의장의 기자회견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NYSE 모니터에 생중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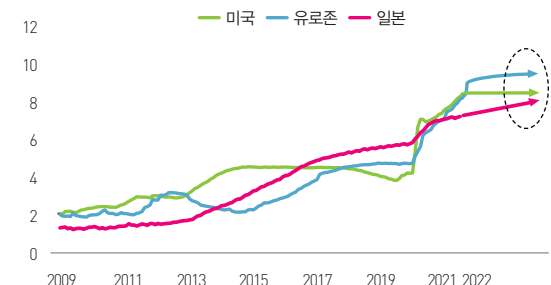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공동부유론을 꺼내들면서 경제정책의 기초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IT, 사교육, 부동산 등 주요 산업에 대한 전방위적 규제 강화로 중장기적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와 함께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으로 민간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 우려가 상존한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CPI 부문별 기여도



주 전년 동월 대비 단위 %·%p 자료 미국 노동통계청 Bureau of Labor Statistics

주요국 중앙은행 총자산



주 화살표는 통화정책 방향 단위 조 달러 조 유로 백조 엔 자료 각국 중앙은행

2

국내 경제

국내 경제는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중심으로 양호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겠지만 기저효과로 성장률 증가 폭은 둔화될 전망이다. 통화정책의 긴축 전환은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겠지만 600조 원대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경기 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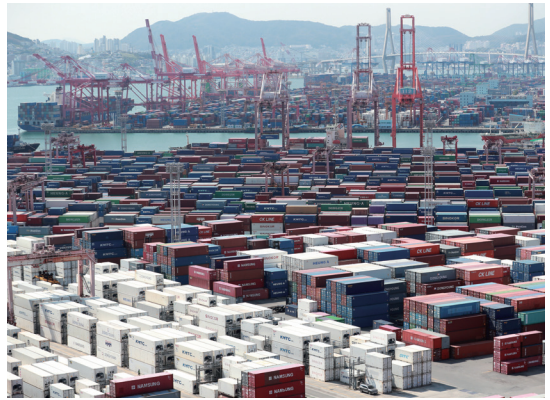


국내 경제

성장률은 둔화되나 양호한 경기 회복세 유지

2021년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민간소비 회복은 예상보다 더디지만 설비투자와 수출 호조에 힘입어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 백신 보급으로 소비와 고용의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고, IT 부문 호황이 지속되며 설비투자를 견인했다. 수출은 역대급 실적을 달성하며 경기 회복 흐름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2022년 국내 경제는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설비투자와 수출 호조세를 이어가겠지만 기저효과로 성장률 증가 폭은 둔화될 전망이다. 통화정책의 긴축 전환은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겠지만 확장적 재정정책이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글로벌 공급병목 현상의 완화 지연, 통화 긴축에 따른 금융시장 충격 등은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



올해 연간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부산항 신선대·감만부두가 활기를 띠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성장률 전망

항목	2020	2021			2022 ^(e)		
		상반기	하반기 ^(e)	연간 ^(e)	상반기	하반기	연간
경제성장률	-0.9	4.0	4.0	4.0	3.0	3.1	3.0
민간소비	-5.0	2.4	4.7	3.5	4.1	3.2	3.6
설비투자	7.1	12.6	3.9	8.2	-0.5	5.5	2.4
지식재·산생산물투자	4.0	4.0	4.1	4.1	4.1	3.7	3.9
건설투자	-0.4	-1.5	0.1	-0.7	2.1	3.1	2.6
상품수출	-0.5	14.4	3.5	8.5	1.9	3.3	2.6
상품수입	-0.1	12.5	7.8	10.1	2.4	3.7	3.1

주: 전년 동기 대비, 2021.11월 기준 단위 % 자료 한국은행

주요 기관의 경제성장률 전망

	2021 ^(e)	2022 ^(e)	전망 시점
IMF	4.3	3.3	2021.10
OECD	4.0	2.9	2021.9
ADB	4.0	3.1	2021.9
KDI	4.0	3.0	2021.11

단위 % 자료 각 발표기관

소비

백신 접종 확대로 대면 소비 증가 기대

위드 코로나로 사회활동에 대한 제약이 완화되면서 그동안 총 저축 증가, 고용 확대에 따른 소득 증가 등에 의해 누적된 소비 여력에 힘입어 펜트업 소비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백신 접종 확대로 대면 소비가 늘면서 도소매, 예술·스포츠 등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 상황이 개선될 전망이다.

※ 산업별 취업자 수(전년 동기 대비, 만 명)

전체 -38.0(2021.Q1) → 61.8(Q2) → 57.7(Q3)

도소매 -19.3(2021.Q1) → -16.1(Q2) → -14.0(Q3)

수출

수출 증가세는 지속되나 증가율은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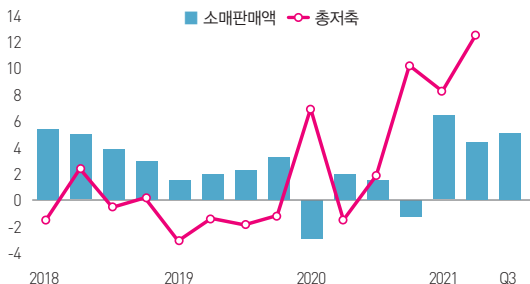
글로벌 경기 회복이 신흥국에도 영향을 미치며 수출 호조세는 지속되겠지만 증가율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위드 코로나로 미국, EU 등 선진국의 민간소비가 회복되면서 주요국에 대한 수출 증가세는 지속될 것이다. 신흥국도 백신 보급 확대로 생산 활동이 정상화되며 자본재 중심으로 수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 가공단계별 수출(전년 동기 대비, %)

소비재 -3.1(2020) → 26.2(202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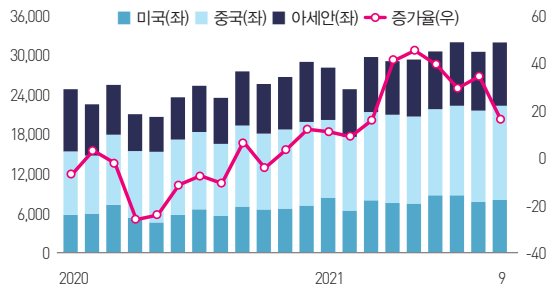
자본재 -7.4(2020) → 15.1(2021.1~9)

소비 및 저축



주 전년 동기 대비, 소매판매는 불변 기준, 총저축은 명목 기준 단위 % 자료 통계청·한국은행

주요국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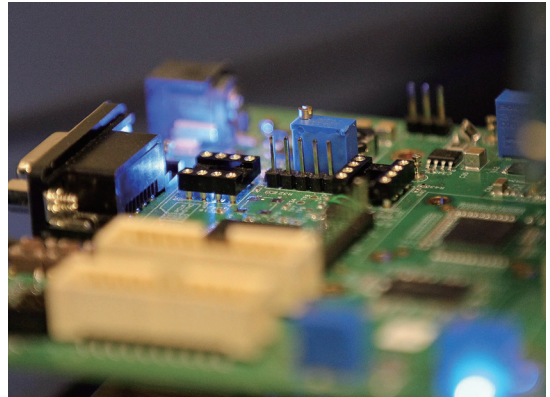
주 전년 동기 대비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관세청

투자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설비투자 확대

위드 코로나로 글로벌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며 건설, 자동차, 의류 등 전방산업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IT 중심이던 설비투자가 철강, 석유정제 등 기타 산업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정책 가속화로 관련 투자도 늘어날 전망이다. 반도체는 2022년까지 공급 부족이 이어지며 투자액이 역대 최고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나 증가율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투자 부문은 건축투자와 토목건설 모두 회복될 전망이다. 건축투자는 설비투자 확대로 공업용 중심의 비거주용 투자가 늘고, 규제 강화로 주춤했던 주거용 건축 또한 공공택지 개발이 진행되면서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토목건설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 등 인프라 투자와 3기 신도시(주택 1만4,000호) 택지 개발을 위한 토목건설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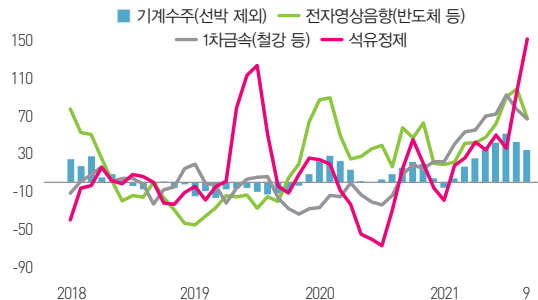


반도체 품목은 지난 10월까지 누적 수출액 1,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정보통신기술^{CT} 수출 상승세를 이끌었다.

※ 공업용 건축 착공(전년 동기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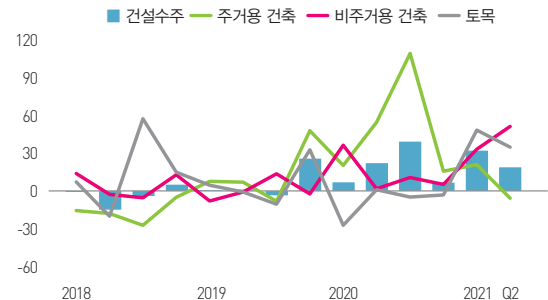
-3.9(2020.Q1) → -20.9(Q2) → 13.7(Q3) → 20.0(Q4)
→ 8.9(2021.Q1) → 39.5(Q2)

수요자별 기계수주



주 전년 동월 대비, 불변금액, 3개월 이동평균 단위 % 자료 통계청

건설수주액



주 전년 동기 대비 단위 % 자료 통계청

정부재정

확장적 재정 통해 경기 회복 견인

604조4,000억 원 규모의 확장적 재정은 경기 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재정지출 증가율(8.3%)이 명목 GDP 성장률(4.2%)의 약 2배에 달하는 확장적 재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양극화 대응, 미래를 대비한 재원 마련, 지역 균형발전 등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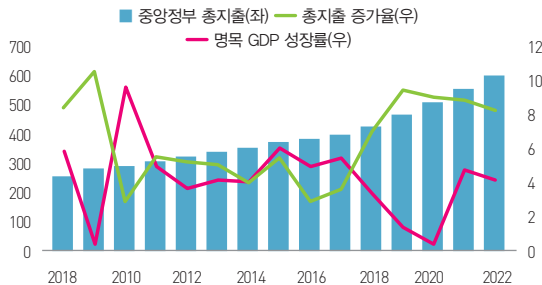
양극화 대응 차원에서는 사회 안전망 확충에 83조4,000억 원,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에 23조5,000억 원, 손실 보상 등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에 4조5,000억 원이 투입된다.

또한 탄소중립 환경 예산에 11조9,000억 원, 한국판 뉴딜 2.0에 33조7,000억 원, 미래산업 연구·개발 R&D 전략투자 강화에 6조2,000억 원이 배정되었으며, 지역균형발전에 52조6,000억 원, 자연재해·생명보호·생활환경 개선 관련 프로젝트에 21조8,000억 원이 편성되었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예산을 올해보다 8.3% 늘어난 604조4,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재정지출과 명목 GDP 성장률



주 총지출은 본예산 기준, 2020년까지 명목 GDP 성장률은 실적치이며, 2021년 이후는 기획재정부의 예측치 단위 조 원·% 자료 기획재정부

정부예산안(본예산) 지출 부문

항목	2020	2021	2022	
			금액	증가율
전체	512.3	558.0	604.4	8.3
보건·복지·고용	180.5	199.7	216.7	8.5
교육	72.6	71.2	83.2	16.8
문화·체육·관광	8.0	8.5	8.8	3.9
환경	9.0	10.6	11.9	12.4
R&D	24.2	27.4	29.8	8.8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3.7	28.6	30.4	6.0
사회간접자본 ^{SOC}	23.2	26.5	27.5	3.8
일반·지방행정	79.0	84.7	96.8	14.3
기타	98.0	103.5	107.0	3.4

주 기타는 농림·수산·식품, 국방, 외교·통일, 공공질서·안전 등 단위 조 원·% 자료 기획재정부

주요 이슈

심상찮은 가계부채 · 자영업자 대출 부실 리스크

이슈 1

과도한 가계부채로 금융 불균형 누적

코로나19 이후 유동성 확대에 자산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투자 자금 용도의 가계부채가 확대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이 늘고 증권 투자를 위한 기타 금융사 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과도한 가계부채로 금융 불균형이 쌓인 탓에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은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금융 불균형 누적, 자금사정 악화로 자산가격 조정에 따른 가계부채 부실에 대한 우려는 예년보다 높을 전망이다.

※ 금융취약성지수*(pt)

73.6(2008.Q1) → 12.6(2011.Q4) → 41.9(2019.Q4) → 58.9(2021.Q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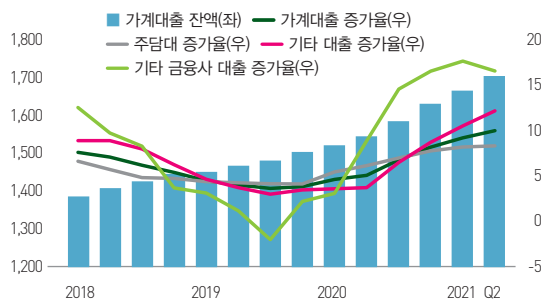
* 금융 불균형과 금융기관 복원력으로 잠재 리스크 측정

이슈 2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 지속에 이자 부담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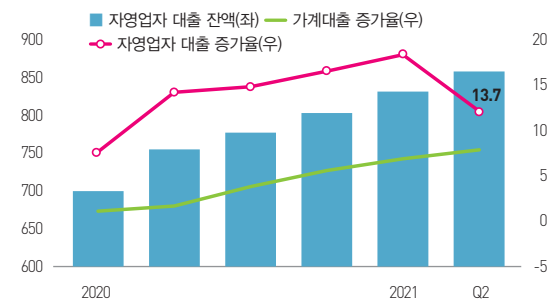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 대출이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대인·여가 서비스 산업은 코로나19 피해가 장기간 누적되어 대출 증가율이 여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이다.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경영상의 어려움이 일부 해소되었지만, 계속해서 커지는 고위험 차주의 이자 부담은 우려 요인이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면, 특히 취약차주와 비은행 및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대출유형별 가계대출



주 전년 동기 대비, 기타 금융사는 증권사, 자산유동사를 포함 단위 조 원·% 자료 한국은행

자영업자 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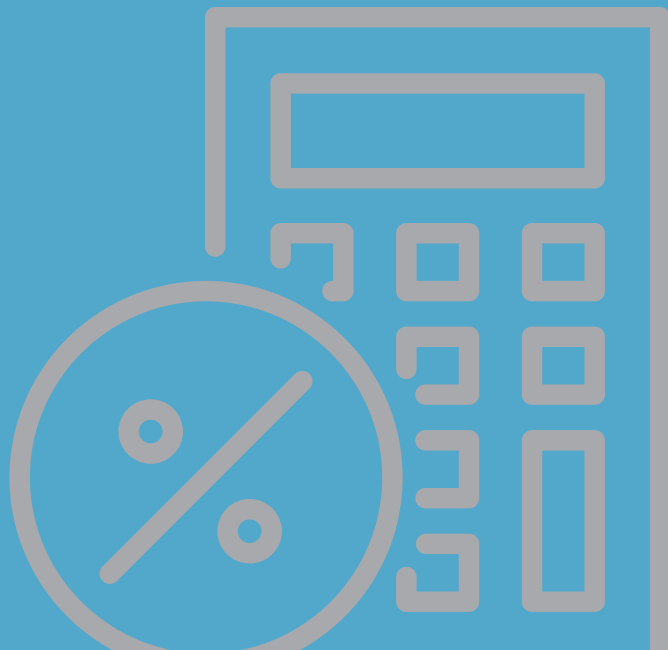


주 전년 동기 대비 단위 조 원·% 자료 한국은행

3

금융시장

한국은행은 올해 양호한 경기 회복세, 물가오름폭 확대 등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인상 기조로 전환했다. 앞으로 인플레이션과 금융 불균형 상황, 주요국의 통화정책 움직임에 따라 기준금리를 1~2회 정도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기준금리

추가금리인상 전망 잇따라

현황 금융 불균형 해소 위해 인상 기조 전환

한국은행은 그동안 누적된 금융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8월 기준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인상 기조 전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추가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인상 기조 전환의 근거로는 양호한 경기 회복세, 물가 오름폭 확대, 민간 부문의 레버리지 확대와 자산 쏠림 현상 등을 들고 있다.

※ 소비자물가지수(전년 동월 대비, %)

0.6(2021.1) → 2.3(4) → 2.6(5) → 2.4(6) → 2.6(7) → 2.6(8) → 2.5(9) → 3.2(10) *한국은행 물가 안정 목표 2.0%

※ 기준금리(%)

1.25(2020.1) → 0.75(3) → 0.50(5) ⇒ 0.75(2021.8) → 1.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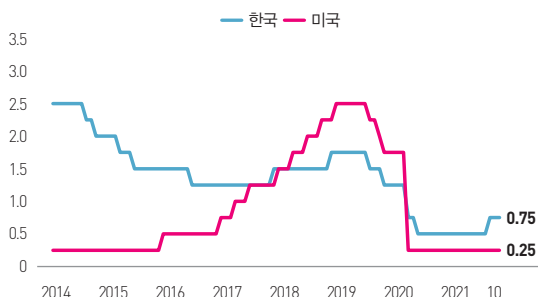
전망 경제 상황 따라 1~2회 추가 인상 가능성 거론

앞으로 인플레이션과 금융 불균형 상황, 주요국의 통화정책 움직임에 따라 기준금리를 1~2회 정도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2022년 내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가시화될 경우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도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변이 바이러스 등 예상치 못한 쇼크가 발생해 경기 회복이 지연된다면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 골드만삭스,뱅크오브아메리카^{BoA}, 노무라증권 등 주요 투자은행^{IB}들은 2022년까지 추가 2회 인상 전망(2021.10월 기준)

기준금리



주 미국은 연방기금금리 상단 기준 단위 % 자료 한국은행·Fed

주요 IB의 기준금리 전망

IB	2021 ^(e)	2022 ^(e)	
		6월	12월
골드만삭스	1.00	1.00	1.25
ING 그룹	1.00	1.00	1.25
노무라증권	1.00	1.00	1.25
스탠다드차타드	1.00	1.00	1.00
BoA	1.00	1.25	1.25
바클레이스	1.00	1.00	1.50
노바스코티아뱅크	1.00	1.25	1.50
중앙값	1.00	1.00	1.25

주 전망 시점은 2021.10월 기준 자료 블룸버그

환율

환율 안정화 기대

현황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로 상승

원/달러 환율은 올 상반기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지난 7월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상승세로 전환했다. 인플레이션 우려로 미국의 통화정책 전환이 가속화되며 달러가 강세를 보였고, 헝가리의 부도 위기설과 같은 중국발 리스크도 불확실성을 가중시켰다.

전망 국내외 경기 회복 힘입어 안정화 기대

백신 접종 확대로 글로벌 경제가 전반적인 회복세를 유지하고, 한국의 수출도 호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환율도 현재에 비해서는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만 논의되고 있는 미국에 비해, 이미 기준금리를 인상한 한국의 통화정책도 원화 강세에 기여할 전망이다. 다만 중국발 리스크가 확대되며 위안화와 원화 가치가 동반 하락하거나 선진국의 통화정책 전환이 신흥국의 긴축 발작으로 이어지는 등 글로벌 경제의 리스크 요인이 현실화될 경우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도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원/달러 환율



주 증가 기준, () 는 각 기간별 원/달러 환율 평균 단위 원 자료 한국은행

주요 IB의 원/달러 환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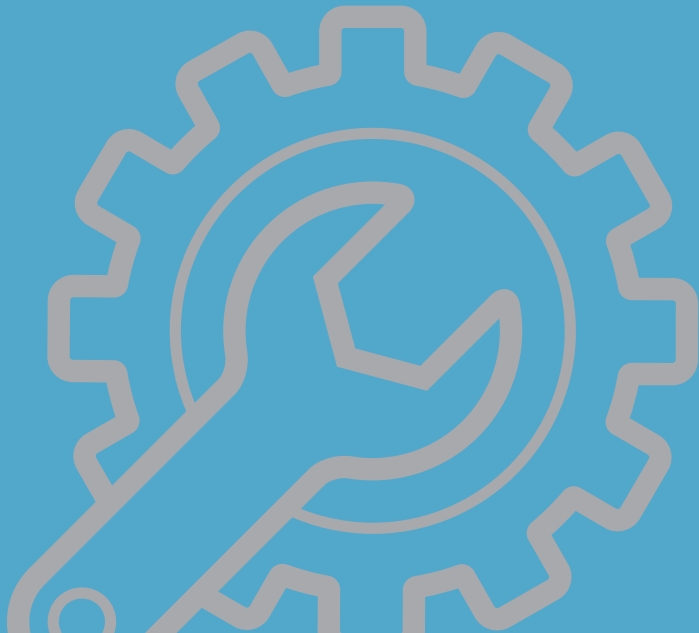
IB	2021 ^(a)	2022 ^(a)	
		6월	12월
스탠다드차타드	1,170	1,140	1,120
웰스파고	1,180	1,178	1,165
ING파이낸셜마켓	1,180	1,220	1,215
코머즈뱅크	1,140	1,150	1,160
노무라증권	1,220	1,180	1,220
RBC캐피탈마켓	1,170	1,180	1,160
크레디트 아그리콜CIB	1,155	1,120	1,100
BNP파리바	1,175	1,175	1,185
평균	1,174	1,168	1,166

주 전망 시점은 2021.10월 기준, 기말 기준 단위 원/달러 자료 블룸버그

4

산업구조

코로나19 방역정책이 완화로 전환되면서 산업 전반에 걸쳐 수요 회복이 기대된다. 다만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공급 측면의 불확실성으로 생산원가증 원자재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경영에 대한 어려움이 우려된다.



산업 환경

수요 회복 기대되나 공급 측면의 불확실성 여전

현황 제조업·서비스업 대부분 생산 증가

국내 제조업 생산은 주력 업종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서비스업 생산은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반도체는 중앙처리장치^{CPU}와 메모리 수요 증가, 자동차는 스포츠 유틸리티차량^{SUV}과 친환경 수요 증가, 철강은 수출 단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생산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조선 부문은 해운 시장 회복, 대형선 중심의 수주 증가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과 자체 공급 부족으로 생산이 감소했다. 서비스업은 여가·운수·금융업 등 대부분 업종의 실적 호조로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전망 공급 측면 불확실성으로 경영난 우려

코로나19 방역정책 전환으로 산업 전반에 걸쳐 수요 회복이 기대된다. 주로 비내구재 중심의 소매판매, 서비스업 등에서 수요 회복이 예상된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공급 측면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금속, 자동차, 식음료, 고무플라스틱, 목재, 가구 등 생산 원가 중 원자재 비중이 높은 중소 제조업의 경영 어려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제조업 실적 기업경기실사지수^{BSI}(기초=100)

84(2020.Q3) → 88(Q4) → 92(2021.Q1) → 97(Q2) → 93(Q3)

※ 전망 BSI

84(2020.Q3) → 92(Q4) → 92(2021.Q1) → 103(Q2) → 101(Q3) → 100(Q4)

※ IBK 여신 비중(2021.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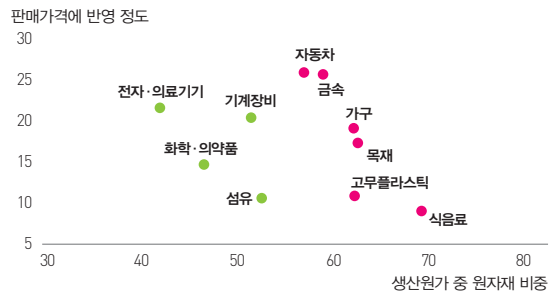
금속 10.7, 고무플라스틱 4.9, 자동차 3.6, 식음료 2.6, 가구 0.9, 목재 0.6

국내 산업별 생산지수 증감률

항목	1919	2020	2021		
			Q1	Q2	Q3
전산업	0.4	-0.4	4.4	12.7	5.0
제조업	0.5	-0.3	4.4	13.4	5.1
반도체	11.7	22.7	21.9	27.2	33.9
자동차	-0.5	-10.0	11.2	22.5	-8.6
조선	17.6	8.6	-15.6	-17.3	-22.7
기계	-5.9	3.6	9.4	18.4	7.6
화학	-1.3	-3.0	2.8	15.7	7.5
철강	-2.2	-6.3	-1.9	13.3	12.0
의료정밀	-11.0	3.9	17.0	31.7	16.4
ICT	4.8	11.9	14.0	19.7	21.0
서비스업	1.4	-2.0	2.2	5.7	7.5

주 전년 동기 대비 단위 % 자료 통계청

산업별 생산원가 중 원자재 비중과 가격 반영도



주 중소제조업 N = 12만4,381 설문조사 단위 % 자료 IBK경제연구소(2021.6)

산업별 전망

불확실성 여전, 반도체 '맑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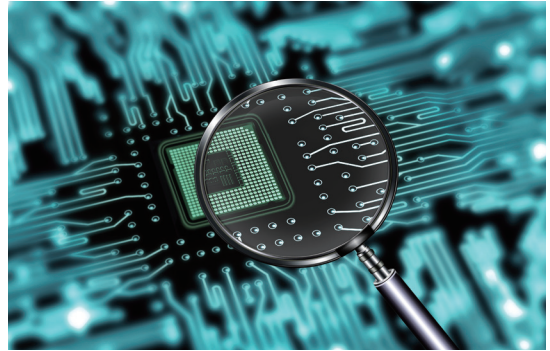
반도체

수출 호조 속 변동성 확대 가능성

K-반도체 전략 등 정책적 지원 확대와 5세대^{5G} 이동통신, 전기자동차, 스마트폰 등 전방산업의 수요 지속이 예상된다. 수출 호조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쟁 심화, 메모리 반도체 가격 조정 등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 2021년 9월 수출 121억8,000만 달러로, 2021년 최고 수출 실적을 기록하며 15개월 연속 증가

※ D램 가격 추이(DDR4 8GB 기준, 달러)
3.7(2021.1) ⇒ 5.3(3) ⇒ 4.8(7) ⇒ 3.6(10)



반도체 수출은 지난 10월 누계 기준 연간 실적 1,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자동차

국내외 생산량 회복세, 친환경 전환 가속화

미국과 유럽 중심의 글로벌 수요가 증가해 국내외 생산량의 회복세가 기대된다. 또한 환경 규제 강화, 친환경 자동차 보급 정책 확대, 충전 인프라 확충 등과 함께 친환경 중심의 산업 생태계로의 전환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철강

수요 증가 예상되나 수익성 하락 우려도

선진국의 인프라 투자와 전방산업의 경기 회복으로 글로벌 수요량이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중국 감산정책 기조 변경, 원자재(철광석) 가격 조정 이슈에 따라 중장기적인 수익성 하락이 우려된다.

※ 세계 철강 산업 성장률(WSF, %)
7.9%(2021) → 4.5%(2022)

* 중국은 탄소 저감으로 조강 생산량 7.6% 감소



철강은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지만 가격 조정 이슈에 따라 수익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조선

발주 회복 불구, 채산성 악화 우려

조선 산업은 원유, 액화천연가스(LNG) 등 대형 에너지 운반선, 친환경 선박 중심의 발주 회복이 기대된다. 하지만 원자재(후판) 가격 상승과 자재 공급 부족 등으로 가동률이 하락하고 채산성이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 글로벌 선박 발주량(백만 CGT)
1,924(2020) → 2,402(2021.상반기)

※ 한국 선박 수주량(백만 CGT) 819(2020) → 1,047(2021.상반기)

유통(도소매)

민간소비 회복으로 업황 개선

위드 코로나로 민간소비가 점진적으로 회복되며 백화점, 대형마트 등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우려, 대면·비대면 채널 간 융합과 경쟁 등 불확실성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 이슈 ①

글로벌 산업구조 변화가속, 혁신이 성패 좌우

코로나19 장기화로 미·중 분쟁, 동맹국 경제 협력 등 자국 우선주의가 확산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체계가 위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원·부자재 조달 리스크와 중간재 수출 감소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다만 향후 미국, EU 등이 경제권역 내 협력을 강화하게 되면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등 핵심 산업에서 국내 기업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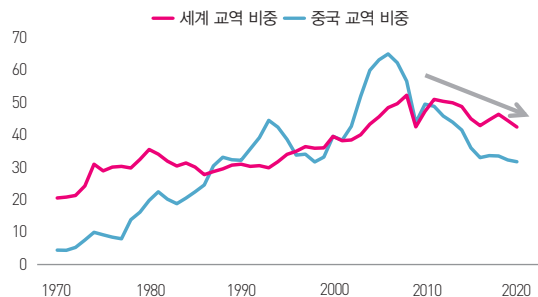
산업구조는 디지털·비대면·친환경 부문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그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업종 내 기업 간 격차도 심화되는 양상이다. 비대면 ICT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전통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융·복합이 이뤄지면서 기존 강자는 퇴보하고 새로운 강자가 출현하기도 한다.

친환경 소비 확산으로 자동차, 조선 등의 산업이 친환경·탈탄소 생산 체제로 본격적으로 전환하고 있어 혁신과 적응에 성공한 글로벌

제조사가 업계를 선도할 것으로 보인다.

- ※ 한국의 4대 그룹은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등 대^북미국 투자 44조 원 계획, 대만도 반도체에 향후 3년간 1,000억 달러 투자 계획
- ※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친환경 자동차 전용 플랫폼 구축, 기술 혁신을 통한 원가 감축 등 친환경 자동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 본격화

세계 및 중국 교역 비중 추세



주 교역 비중은 GDP 대비 교역액 단위 % 자료 세계은행¹⁶⁾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기업 시가총액 변화

	기업	2019년 말	2021.10월 말	증가율
자동차	도요타	1,975	2,455	24.3
	테슬라	4,142	11,187	170.1
콘텐츠	디즈니	2,628	3,072	16.9
	넷플릭스	1,432	3,058	113.5
금융결제	BoA	2,964	3,910	31.9
	페이팔	1,271	2,733	115.0
유통	월마트	3,372	4,188	24.2
	아마존	9,162	17,103	86.6

단위 억 달러·% 자료 블룸버그

산업 이슈 ②

둔화된 산업 역동성, 구조개편 시급

국내 산업의 역동성이 지속적으로 둔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의 활력이나 역동성을 보여주는 구조변화지수가 2010년대 들어 1970년대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하락했다. 제조업은 구조조정 지연 등으로 부가가치 비중이 하락했으나 서비스업은 지식 기반 서비스업의 성장 등으로 부가가치 비중이 확대되었다. 산업 전반의 활력과 생산성 개선을 위해서는 인적자본 확충, 무형자산 투자 확대, 산업기술 융합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국판 뉴딜 2.0은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산업 양극화 해소, 디지털 지위 유지, 탄소중립 실현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한국판 뉴딜 1.0을 개편한 것으로, 메타버스 등 초연결 산업 육성, 탄소중립 추진 기반 구축, 청년정책, 격차 해소 등의 신

규 과제가 포함되었다. 이와 함께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 및 기업 간 협업과 제휴가 활발해지면서 기업들의 대응 전략 추진도 본격화되고 있다.

※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30.5(1988) ⇒ 30.9(2011) ⇒ 27.2(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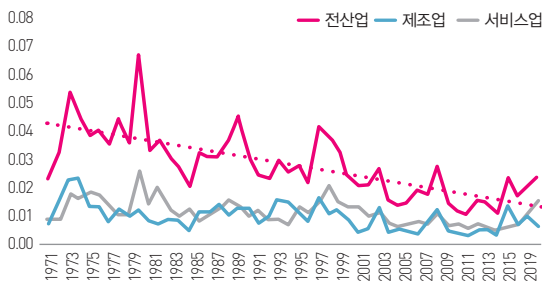
※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

50.0(1988) ⇒ 61.9(2008) ⇒ 62.3(2020)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대응 전략

원가 절감(55.0%), 제품 혁신(30.2%), 거래처 다각화(30.1%) 등의 순(N=13만8,461 IBK경제연구소 설문조사 설문조사 중복 응답, 2021.6)

한국의 산업구조변화지수 추이



주 산업구조변화지수는 한 산업의 총부가가치 비중 변화를 기간으로 나눈 값으로 1년간의 평균적 변화 크기, 최대 1로 표준화 자료 산업연구원 '산업경제분석'(2021.6월호)

한국판 뉴딜 2.0 과제 및 사업비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
DNA 생태계 강화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 SOC 디지털화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신규>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탄소중립 추진 기반 구축<신규>	사람·투자 고용·사회 안전망 청년정책<신규> 격차 해소<신규>

	2020년 국비	2021년 국비		2022년		2020~ 2025
		뉴딜 1.0	뉴딜 2.0	국비	총 사업비	
디지털 뉴딜	2.5	7.7	8.3	9.3	14.6	49
그린 뉴딜	1.2	8.1	9.1	13.3	21.9	61
휴먼 뉴딜	1.7	6.9	9.7	11.1	13.6	50
합계	5.4	22.8	27.1	33.7	50.1	160

단위 조 원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1.7)

산업 이슈 ③

탄소중립 전환의 위기와 기회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탄소중립 움직임,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으로 산업 부문의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미국, EU 등 주요국은 이미 온실가스 저감 목표 상향, 탄소세 부과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발전, 정유, 전기전자 순으로 탄소배출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만큼 규제가 강화되면 중소기업의 부담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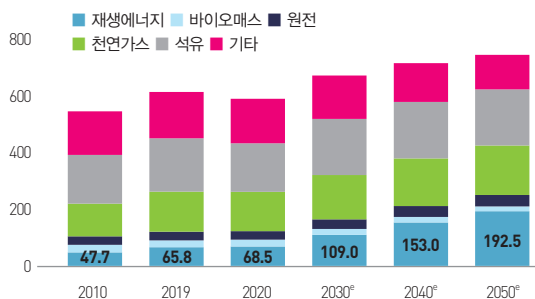
이런 가운데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설비투자 확대에 다양한 신산업과 새로운 사업 기회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 기대감도 크다. 저탄소 제조공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투자가 확대되고 소비 트렌드가 변화함에 따라 친환경 제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흐름에 발맞춰 정부는 제조업이 저탄소 산업구조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국내 기준 온실가스 고배출 산업군은 약 13.4%인 9만9,000개 추산(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자료에 근거한 IBK경제연구소 추정, 2019년 기준)

※ 국내 기업의 약 60%가 '탄소중립은 가야 할 길이라고 인식하나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응답(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 중 403개 설문, 2021.3, 대한상공회의소)

* 탄소중립 전환비용 완화를 위한 세제 감면, 금융 지원, 규제 특례 등 제공 예정(탄소중립 산업 전환 추진위원회, 2021.4)

세계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전망



주: 엑사플¹⁾은 석유 1.7억 배럴의 에너지량 자료 세계에너지기구²⁾, '세계 에너지 전망 2021'

국내 온실가스 고배출 산업군과 중소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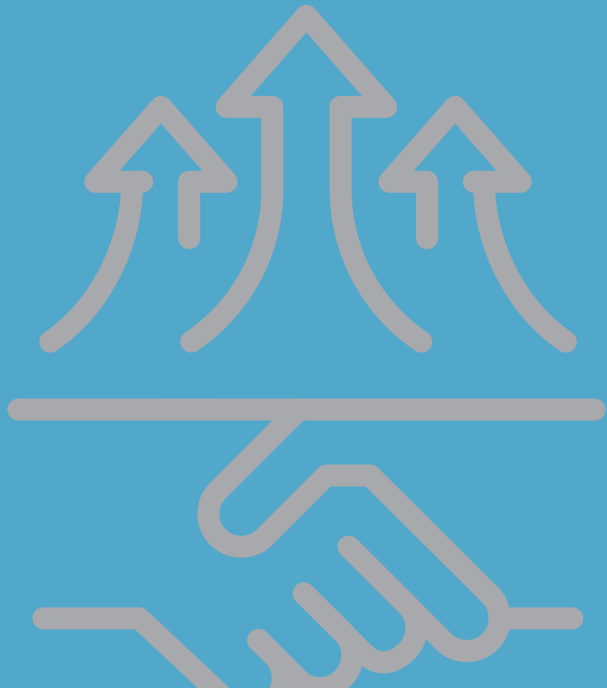
업종	기업당 배출량(톤)	전체 기업수 (개)	중소기업	
			기업 수(개)	비중(%)
발전에너지	1,379	8,488	8,343	8.5
정유	641	296	274	0.3
전기전자	360	17,021	16,817	17.2
철강	267	4,504	4,329	4.4
비철금속	218	5,813	5,729	5.9
석유화학	58	9,069	8,815	9.0
통신	47	1,008	1,008	1.0
항공	27	149	0	0.0
광업	24	908	898	0.9
섬유	23	7,200	7,168	7.3
전체	-	99,714	97,746	100.0

주: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에 근거한 고배출 산업군 17개 업종 규정, 2019년 기준
자료: 환경부·한국은행 경영자료 기준 IBK경제연구소 추정

5

중소기업 경기 전망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내수시장의 회복이 기대되나 여전히 불안 요인이 상존한다.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고, 수출과 내수 모두 비용 부담 압박이 가중되고 있어 자금사정 개선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업종 간 경기 회복 격차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생산

내수 회복 기대되나 비용 요인은 부담

현황 제조업 생산 하반기 증가세 둔화

올해 상반기 제조업은 전년 대비 생산이 증가하고 재고가 감소하며 큰 폭의 회복세를 보였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 증가세는 한 자릿수로 둔화되며 위축되었다. 재고·출하 순환은 5월까지 회복 국면으로 개선되었으나 6월부터 후퇴 국면을 향해 급격히 선화하는 모습이였다.

※ 제조업 생산 및 재고(전년 동월 대비, %)

생산 10.0(2021.4) → 12.2(5) → 10.5(6) → -3.7(7) → 7.1(8)

재고 -1.4(2021.4) → -1.6(5) → -0.6(6) → 1.1(7) → 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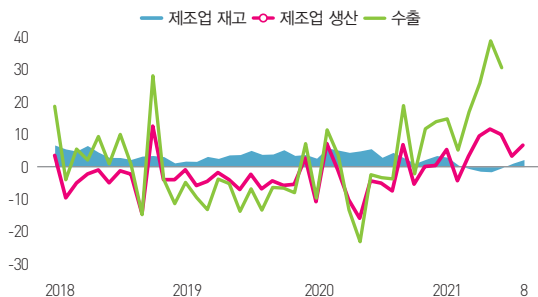
전망 비용 부담 증가로 증가세 소폭 약화

향후 수출과 내수 모두 비용 부담이 증가해 생산 증가세는 소폭 약화될 전망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글로벌 물류난이 2022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수출 중심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 심리 회복과 백신 접종 확대는 내수 회복에 긍정적이지만 임금, 제조원가 상승 등 비용 요인은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 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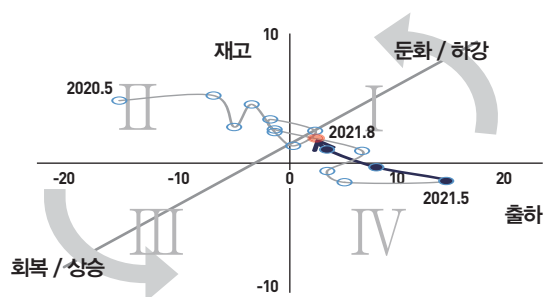
898.53(2019.12) ⇒ 982.75(2020.6) ⇒ 2,455.54(2020.12) ⇒ 3,712.69(2021.6) ⇒ 4,583.39(2021.10.22, 2019년 말 대비 5배 상승)

생산·재고 및 수출



주 전년 동월 대비 단위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통계청

재고·출하 순환



주 전년 동월 대비 단위 % 자료 통계청

설비투자

경영 실적 회복이 투자 확대 유인으로 작용

현황 설비투자,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

설비투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으며, 제조업 평균가동률 또한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 한국은행의 'B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실적 BSI는 2020년 5월 최저점인 77을 기록했으나, 지난 8월에는 19포인트 오른 96으로 집계되었다. 지난 9월 제조업 평균가동률 또한 2020년 5월보다 10.3%포인트 상승한 73.5%를 기록했다.

※ 설비투자 실적 BSI(기준=100)

90(2019.12) ⇒ 77(2020.5) ⇒ 89(12) ⇒ 98(2021.4) → 94(5) → 97(6) → 97(7) → 96(8)

※ 제조업 평균가동률(%)

74.7(2019.12) ⇒ 63.2(2020.5) ⇒ 74.3(12) ⇒ 73.5(2021.4) → 73.0(5) → 73.7(6) → 74.0(7) → 74.1(8) → 73.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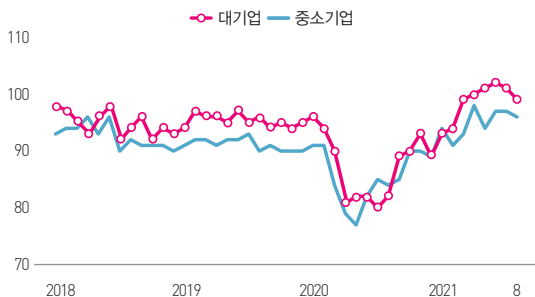
전망 경영 실적 회복에 따른 투자수요 확대로 소폭 증가 예상

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 투자 관망 또는 축소를 부를 것이라 우려가 있지만, 정부의 투자 활성화 정책이 이를 일부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조업 매출 회복이 설비투자 확대를 유인할 것으로 예상되며, 선행지표인 자본재 수입액과 국내 기계수주액 또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제조업 매출액(전년 동기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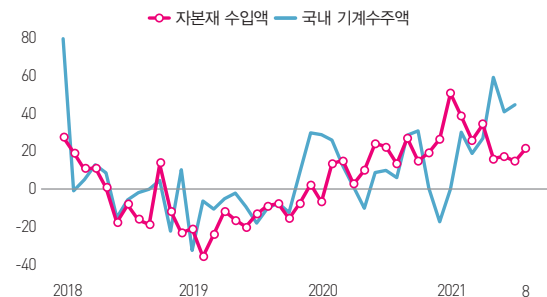
대기업 -11.3(2020.Q2) → 20.2(2021.Q2),
중소기업 -4.9(2020.Q2) → 14.1(2021.Q2)

대·중소기업 설비투자 실적 BSI



단위 기준=100 자료 한국은행

자본재 수입액 및 국내 기계수주액



주 국내 전체(대기업 포함), 전년 동기 대비 단위 % 자료 한국은행·산업통상자원부

자금사정

업황 회복에도 자금난 요인 여전

현황 금융 지원·업황 회복세 힘입어 자금사정 개선

정책자금 지원 등 공급 확대와 업황 회복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은 지난해보다 개선되는 추세다. 이는 저금리 환경과 금융 지원 조치 연장 등으로 금융권의 대출태도가 완화되었고 전반적인 업황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는 데서 기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으로 일부 중소기업은 여전히 매출 회복 지연, 비용 부담 등에 따른 자금난을 겪고 있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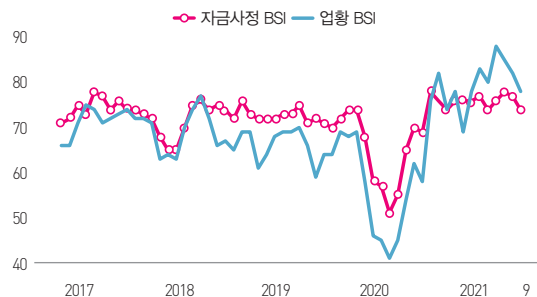
※ '2021년 중소기업 자금사정 동향' 조사에서 중소기업의 27.6%가 자금사정 '나쁨', 주요 원인으로 '매출액 감소',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부담' 등을 지적(중소기업중앙회, 2021.7)

전망 정책 변화 및 비용 부담으로 자금사정 개선세 둔화 예상

코로나19 연착륙을 위한 금융정책 변화와 비용 부담 요인 등으로 자금사정 개선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내년 3월 코로나19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기간이 만료되면 금융권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들의 경영 회복에도 불구하고 대출 금리,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 등의 비용 부담은 자금사정 개선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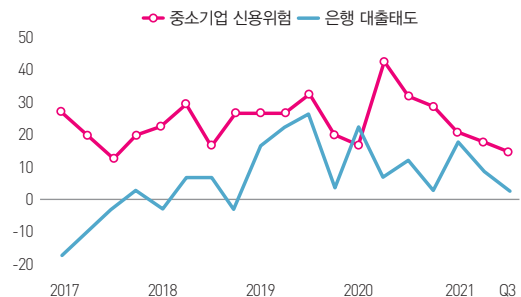
※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10~300인 미만 사업장, 천 원)
3,940(2016) → 4,078(2017) → 4,279(2018) → 4,428(2019) → 4,556(2020)

중기 자금사정 및 업황 실적 BSI



단위 기준=100 자료 한국은행

중기 신용위험 및 은행 대출태도



주 대출태도는 '강화' < 0 < '완화' 단위 미 자료 한국은행

소상공인

경기 회복 기대에도 업종간 회복 격차 우려

현황 소상공인 경기 회복, 일부 서비스업 어려움 여전

소상공인 경기는 전년 대비 회복세를 보였다. 소매판매액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카드 매출이 상승하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다만 일부 대면 서비스업의 매출 회복은 지연되고 있는 형국이다. 생활 업종은 대부분 회복세를 보인 반면, 여행업과 여가업의 경기 회복이 늦어지고 있다. 특히 음식·주점업의 경우 매출은 오히려 감소했다.

※ 소매판매액지수(2015년=100, %는 전년 동월 대비)
125.0(2019.12) ⇒ 101.6(2020.2) ⇒ 125.1(2021.3, 13.6%↑) ⇒ 125.5(2021.6, 5.3%↑) ⇒ 124.2(2021.8, 7.7%↓)

※ 카드이용대금(전년 동월 대비, %)
생활업 9.4(2021.7) → 7.9(8) → 1.3(9),
음식·주점업 -18.2(2021.7) → -16.0(8) → -4.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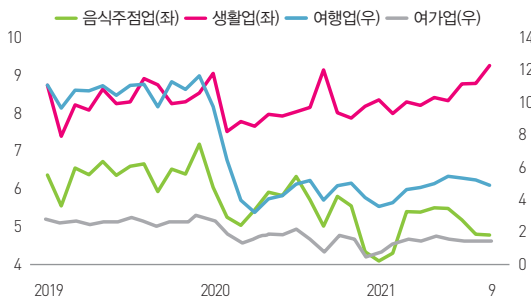
전망 경기 회복 속도·양상에서 업종간 회복 격차 우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단계적 일상회복을 이행함에 따라 대면 서비스업까지 경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업종간 회복 격차에 대해서는 우려가 상존한다. 음식점업과 여가업 등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민감한 업종을 중심으로 회복 속도 및 수준에서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소상공인 경기 전반 전망 BSI(기준=100)
89.8(2021.1) ⇒ 75.0(3) ⇒ 71.5(6) ⇒ 45.4(8) → 65.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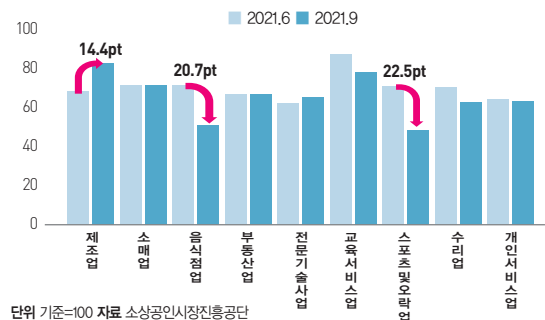
※ 소상공인 업종별 경기 전반 전망 BSI(기준=100)
제조업 68.9(2021.6) ⇒ 83.3(9)
음식·주점업 72.3(2021.6) ⇒ 51.6(9)
스포츠·오락 71.4(2021.6) ⇒ 48.9(9)

업종별 카드이용대금 추이



단위 천억 원·백억 원 자료 IBK

업종별 경기 전반 전망 BSI



단위 기준=100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